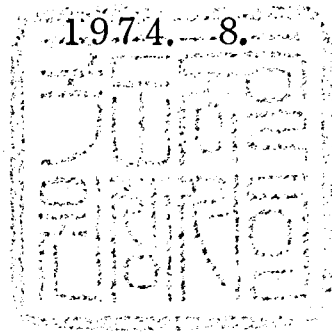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연구책임자 : 이 승 윤

目 次

第1章 序 論	3
第2章 經濟統合의 類型과 一般理論	7
가. 分業의 形成 要因	7
나. 地域經濟統合의 類型	10
第3章 南·北韓經濟統合의 必然性 및 前提條件	17
가. 經濟統合의 必然性	17
나. 經濟統合의 前提條件	22
다. 經濟成長과 統合展望	32
第4章 東·西獨의 接觸類型과 韓國에 適用可能性	43
第5章 展望 및 對策	52

第 1 章 序 論

本研究報告書는, 国土統一院의 委囑에 依하여, 南·北韓經濟統合의 必然性和 經濟發展 展望에 對한 檢討를 試圖하기 爲하여 着手하게 된 것이다.

一般的으로 經濟統合이라 함은 우선 非政治的인 分野에서의 交流를 前提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 南·北間에 이같은 非政治的인 分野에서의 交流와 接觸이 欠如된 상황하에서는 經濟統合의 實現性을 現實的으로 認定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經濟統合 (Economic Integration) 이라 함은 흔히 共同体內的 關稅라든가 資本, 技術等 生産要素의 自律的인 移動과 地域間 分業 體系의 擴大로서 全體的인 經濟發展을 促進시키기 爲한 國家間的 經濟的 統合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歐洲共同市場 (EEC) 을 들 수 있으며, 東歐諸國에 있어서는 1次로 1955年 12月末 「부다베스트」의 CMEA 總會에서 東歐諸國의 經濟計劃과 生産全般에 對하여 調整의 必要性 및 工業에서의 特化에 關한 必要性의 認識과 그에 對한 討議를 中心으로, 自動車, 트랙터, 農機械生産等에서 完全한 特化가 始作된 現象을 볼 수 있는 것이다.

勿論, 이期間中에 經濟協力の 構造가 完全히 變化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主로 雙務貿易關係에 依存하는 國際協력이 繼續되었던 事實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南·北韓間에는 이제껏 經濟的인 交流라든가 非政治分野에

서의 接觸이 中斷된 狀態下에서, 지난 4半世紀 동안 理念과 體制가 相異한 異質的인 體制下에서 存續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60年代에 와서 國際間的 勢力의 多元化 現象과 強大國의 韓半島에 對한 利害關係가 現象維持와 平和定着으로 固定되자 지난 1970年 朴大統領의 8.15宣言과 이듬해 72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가 提案한 南·北韓離散家族 찾기 運動은 南·北間의 非政治的 接觸을 試圖한 劃期的 事件이었다.

이같은 事實은 다시 南·北統一의 原則과 先行條件을 천명한 1972年 7月 4日의 南·北共同聲明으로 連結되었으며, 6.23 特別 宣言으로의 發展을 보았던 것이다.

이같은 政府의 새로운 平和統一政策을 提示한 6.23 聲明은 오늘날의 國際關係의 現況에 對한 率直한 檢討와 現實主義的인 接近方法을 特徵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껏 우리는 大韓民國 政府가 韓半島에서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立場에서 北韓의 國聯加入을 反對해 왔으며, 여타의 國際機構에 北韓의 加入을 저지해 왔는데 國際總會에서 韓國問題가 討議될 때 마다 南·北代表團의 同時 招請案을 封鎖해 온 從來의 統一外交政策을 이제 6.23 聲明을 계기로 하여 撤回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번의 聲明이 韓半島에 있어서 平和의 維持, 南·北間의 內政의 不干涉과 緊張의 緩和를 平和統一努力의 1次的 課題로서 새삼 強調한 事實은 南·北對話가 始作된 以來 北韓當事者들이 계속 大韓民國의 法體制의 變革을 主張함과 아울러 빈번한 挑發行爲

를 恣行하여 政治를 難局으로 몰아 넣고 있는 無禮한 事態에 對한 關心의 表示로 보인다.

특히 6.23 聲明은 共產主義 몇몇 國家들을 除外하고는 오늘날 世界最多數國家들의 好意的 反應을 일으키고 있음은 勿論, 韓國의 統一外交에 새로운 次元을 形成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와 併行하여 南·北調節委員會의 共同委員長은 非政治的 分野에 있어 多方面에 걸친 南·北韓交流를 提案한 바 있다.

특히 이가운 데서 南·北間의 經濟人 相互交流와 商社의 相互常駐問題는 特記할 만한 것이며, 더욱이 南·北韓이 同時에 國聯이라든가 여타 國際機構에 加入을 前提로 한다면,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制限된 分野에서의 協力을 爲始하여, 國際市場에서의 北韓과의 競爭問題에 對한 檢討와 分析은 매우 重要한 問題가 되는 것인데 이 같은 接觸과 交流, 競爭의 諸問題는 궁극적으로 經濟統合의 前提條件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最近 數年間에 있어서의 東·西和解를 基調로 하는 國際政治, 經濟情勢의 變化로 말미암아 始作된 南·北間의 對話는 政治 및 軍事的인 對立關係에서 漸次 經濟的 競爭으로 轉換할 可能性이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事實은 또한 南·北間의 交易의 可能性을 시사함과 아울러 각기 가지고 있는 對外經濟去來의 競爭性을 暗示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對北韓戰略을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修正하여야할 必要性이 대두되는 것이다.

특히 80年代에 1人當 GNP 1,000弗과 輸出의 100億弗 目

標를 設定하고, 高度成長을 追求하고 있는 韓國은 가까운 將來에 非敵性 共產圈市場을 確保하는 問題까지를 研究하는 段階에 이르렀고, 北韓에 있어서도 現在 歐美諸國을 爲始하여 西方自由主義諸國에 對한 輸出 및 經濟協力の 擴大를 強化하기 爲한 努力을 傾注하고 있는 段階에 進入하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本研究報告書의 目的은 南·北韓 經濟統合에 對한 必然性의 檢討와 經濟發展度展望을 予測하기 爲하여 試圖하였는데, 첫째 經濟統合의 一般理論을 中心으로 하여 南·北韓의 經濟統合의 必然性を 主로 理論的인 側面에서 檢討하고, 둘째로는 南·北韓經濟現況과 成長予測을 80年代를 中心으로 考察하였는데 무엇 보다도 經濟統合의 制約 要因이 될 수 있는 經濟構造的인 側面과 經濟力量面에서의 檢討를 試圖하였으며, 끝으로 오늘날 韓國과 同一한 分斷國인 東·西 獨間의 交流와 接觸의 模型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適用될 것인가 하는 可能性을 比較檢討하는데 研究의 範圍를 限定하였다.

이중에서 北韓經濟의 統計는 主로 國土統一院의 北韓經濟統計集 (1972. 11)과 南·北韓經濟力量比較(1974)를 引用하였으나, 北韓 統計의 未備로 因한 正確한 長期予測을 할 수 없었다는 點을 明記하여 둔다.

第 2 章 經濟統合의 一般理論

가. 分業의 形成要因

一般的으로 經濟統合 (Economic Integration) 이라든가 交流로 因한 地域間 分業體系의 確立은 財貨와 用役 其他 生産要素의 自律的인 移動으로 말미암아 量産體制의 確立과 規模의 經濟를 實現 시켜 준다.

따라서 普通 分業 (Division of Labor) 이라 하면 交易의 結果로서 促進되며 이같은 分業形態가 形成되는 原因은 첫째로 天然資源의 相異한 現象과 土地의 肥沃도가 世界的으로 同一하다 하더라도 人口分布의 不均等이 分業體系를 形成하는 原因이 될 수 있으며, 둘째로 人力開發現況의 差異가 分業體系를 形成하여 주기도 하는데 人間能力의 差異라든가 科學技術水準의 相異, 또는 天賦의 人種의 性質의 差異도 있지만 政治的 社會的 構造도 이에 못지않게 作用하고 있다.

따라서 土地라든가 天然資源等은 主로 自然的 條件에 屬하는 것으로서 人間의 努力에 依하여 變更될 수가 거의 없는 것이지만, 人力開發이라든가 科學技術水準 또는 社會的 政治的 差異에서 오는 分業形態는 그 자체가 人間의 努力의 結果이기 때문에 歷史적으로 變更되는 것들이며 그런 意味에서 社會的 條件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自然的인 條件에 依하여, 影響을 많이 받고 있는 1次生産物을 除外하면 國際分業은 社會的 條件 即 後天的인 條件에 依

하여 더욱 많은 影響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美國의 社會組織과 技術指導上的 才能은 自國의 國際競爭力을 優越하게 하는데 이바지 하였는데 이같은 現象은 그들의 어떤 天賦의 資質이라기 보다 主로 機會와 訓練의 差異에서 發生하였으며 한편 自然的 條件自体도 오늘날 高度로 發達한 科學과 技術下에서 人爲的인 變更의 여지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든 地域間 또는 各國은 生産要素의 賦存度를 달리 하고 그 質도 다르므로 生産要素 가운데 豊富하고 良質인 어떤 生産要素가 있을 경우 그같은 生産要素를 많이 使用하는 商品生産에서 他國보다 더 뛰어난 適性을 가지고 있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와같은 分業의 擴大範圍는 市場의 크기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結局 需要에 依하여 制約됨으로써 需要의 範圍는 量産体制의 確立을 可能하게 하고 規模의 經濟를 實現하게 한다.

오늘날 美國이 國際市場에서 競爭力의 優位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國內市場의 幅이 他國에 比하여 넓기 때문에 「外部經濟」 (External Economies)를 누리기 때문에 生産費가 낮은데 起因하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規模의 經濟를 實現하기 爲하여 EEC 및 其他의 共同市場이 登場하고 있으며 規模의 經濟에 依하여 國際分業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貿易에 依하여 分業이 促進된다는 뜻이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技術的인 分業도 더욱 促進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分業과 交易은 서로가 相關關係에 있으며 交易이 發生하는 것은 어떤 商品의 國內에서의 非利用性(Unavailability)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即 어떤 商品을 國內에서 利用할 수 없는 경우 即, 國內에서는 全여 生産되지 않거나 生産이 되더라도 外國에서 보다 비싸게 買하는 商品은 輸入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소위 「垂直分業」即, L - N型(勞動 - 自然型)의 交易은 先進國의 工產品과 低開發國의 1次產品間의 交易形態로서 가장 典型的인 貿易形態이며 同時에 國際分業은 異質的이며 따라서 補完的이어서 「國際均衡」(International Equilibrium)을 維持할 수 있었다.

그런데 近來의 交易은 소위 「水平分業」 即, L - C型(勞動 - 資本型)으로 變하여 國際貿易은 同質的이고, 競爭的이 되는 同時에 國際均衡은 파괴되어 1次產品의 生産國에는 國際收支의 不均衡을 가져 오게 되었다. 이같은 垂直分業은 또한 南北貿易 그리고 水平分業은 東·西貿易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國際分業은 또한 變點을 달리 하면, 自然的 分業과 計劃的 分業으로 分類할 수 있는데 이와같이 生産適性에 依하여 形成되는 分業形態는 自然的 分業이라 할 수 있으며 規模의 經濟라던가 其他 政治的 社会的 要因에 依하여 計劃的으로 發生하는 分業은 計劃的 分業이라 볼 수 있다. 한편 地域統合으로 나타나는 地域內 産業 改編等은 現段階에서 크게 注目を 끌고 있는 計劃的 分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交易은 分業을 前提로 하였으나 이제는

交易이 分業을 規制하게 된다.

어떻은 各國의 國民經濟는 相異한 發展段階에 있으며 따라서 各 各 相異한 經濟構造를 가지고 있는데 이같은 相異한 經濟構造는 그 自体 内部의 歴史的 條件과 内部論理에 依하여 構成되는 同時에 위에서 말한 國際分業속에 編入되어 거기에 適應하는 過程에서 國民經濟의 均衡을 가져 오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國民經濟를 理解하기 爲하여서는 構造理論과 歴史的 方法이 要請되는 바이나 이같은 關聯性を 指摘하는 데 그치고 이 問題를 더 깊이 檢討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의 論議進行上 各國民經濟는 國際經濟關係에 順應하는 轉形可能性(Transformation Possibilities)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前提한다.

나. 地域經濟統合의 類型

第2次 世界大戰以後로는 各國이 關稅制度를 運營하는데 있어서 國際的인 協約을 通하여 서로가 步調를 맞추는 傾向이 많아졌다. 이같은 傾向가운데서 가장 重要한 點을 2가지로 例를 들면, 첫째로 多數의 國家들이 關稅會議를 開催하여 그같은 會議에서 各參加國이 他國家들과 關稅 및 其他 貿易에 關한 條件에 對하여 交渉하는 方式이다.

이같은 方式에 依하면 會議參加國의 關稅協定은 恒常 兩國間에 締結되지만 關稅의 引下에 對한 協定은 모든 다른 參加國에 擴大

適用함으로써 結果的 으로는 關稅 및 其他의 貿易障壁의 引下가 多
國間 協定과 같이 되는 것이다.

例를 들면, 2次世界大戰以後로 「關稅 및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의 主權下의 여러번
에 結친 國際會議에서 이같은 方式에 依한 國際間의 關稅가 크게
引下되어 왔다.

다음 國際間의 共同步調를 取하면서 關稅를 調整한 또하나의 類
型은 「地域經濟統合」(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다.
經濟統合에는 다음 3가지 種類가 있는데 ①自由貿易 地域
(Free Trade Area)과, ②關稅同盟(Customs Union)과
③共同市場(Common Market) 등으로 分類된다.

「自由貿易地域」이란 會員國들 사이에 모든 關稅를 撤廢하되 會
員國以外에 國家들에 對하여서는 同盟國이 獨自的으로 關稅를 定할
수 있는 制度이고, 「關稅同盟」은 同盟國 사이에 關稅를 撤廢하는
것은 自由貿易地域과 아무런 差異가 없으나 會員國以外의 國家들에
對하여서는 會員國들이 共同으로 關稅를 設定하는 約定이다.

「共同市場」은 關稅同盟으로 부터 一步더 나아가서 會員國間 關
稅의 撤廢와 對外的으로 共同關稅率의 設定과 아울러 勞動이나 資
本等 生産要素의 會員國間 自由移動과 그리고 그밖의 形態의 經濟
協力 및 經濟政策 등의 相互調整 등을 協定하는 制度下에 있다. 即
지난 1958년에 發足한 以來 몇번 째의 危機를 直面하면서도 順調
롭게 發展하고 1968年 7月에 關稅同盟을 完成한 「歐州共同体」

(EC)는 1969年末로서 그過度期를 끝내고, 1971年 1月부터 다음段階인 通貨同盟에 第1步를 내딛고 더한층 經濟發展의 目標을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2次世界大戰 以後, 經濟計劃을 推進하여 急速한 經濟力을 強化시키고 있는 蘇聯과 廣大한 國內市場의 發展을 主軸으로 圧倒的인 經濟力을 가지고 있는 美國에 比하여, 西「유럽」諸國의 經濟力은 脆弱하고 市場이 狹小하였기 때문에 大規模生産의 利益이 主要한 役割을 하는 重化學 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經濟成長을 이룩하기에는 많은 苦難이 予想되었다.

여기서 經濟力 強化를 通하여 「유럽」의 復權을 表現시키겠음 經濟統合이 具體化하고, 石炭과 鐵鋼共同體를 始初로 EEC가 發足하게 되었다. 貿易面을 中心으로 하여보면 關稅同盟에의 第一步가 發足된 1959年을 高비로 加盟國은 全體가 顯著한 貿易의 伸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表2-1)

특히 EC 6個國 全體로서 볼 때, 結成前의 1954-59年 사이에 平均伸張率은 輸出 9.9%, 輸入이 7.9%였으나 그後 輸出入이 모두 增加하여 1964-70년에는 輸出에서 13.0%, 輸入이 1.2%에 達하고 있다.

(表 2-1)

EEC의 貿易

区 分	伸 張 率 (%)					
	總 輸 出 (入)			域 内 間 輸 出 (入)		
	54-59	59-64	64-70	54-59	59-64	64-70
(1) 輸 出						
西 独	13.3	10.2	13.2	12.4	16.7	18.4
仏 蘭 西	6.1	9.9	12.2	10.8	18.0	20.0
伊 太 利	12.2	15.4	14.2	17.5	23.0	20.0
和 蘭	8.6	10.0	12.5	13.2	15.2	17.7
베네룩스	7.4	11.2	12.9	9.0	18.2	17.7
E C 計	9.9	4.0	13.0	11.9	17.7	18.6
(2) 輸 入						
西 独	12.7	11.8	12.6	17.0	15.7	21.0
仏 蘭 西	3.9	14.6	11.2	13.7	22.5	19.7
伊 太 利	7.0	16.6	12.8	8.6	21.5	21.0
和 蘭	7.0	12.4	11.3	10.2	16.0	15.3
베네룩스	6.2	11.5	11.4	9.5	14.3	16.1
E C 計	7.9	13.2	12.0	11.9	17.7	18.6

資料：OECD統計 1973.

한편 經濟成長에 對한 輸出等의 增加寄与率은 實質베이스로 1951-59年間 西獨 31.1%, 仏蘭西 14%, 伊太利 22.3%였으나, EEC 結成後의 59-70년에는 各各 38.1%, 23.9%, 41.2%로 모두 그寄与率이 높아 졌다.

이와같은 EEC 發足에 比하여, EFTA 諸國의 貿易의 伸張은 低水準이었다고 볼 수 있다. 即 1960년에 發足한 以來 計劃을 上廻하는 速度로 域内關稅가 撤廢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域内貿易의 伸張率은 EC의 그것보다 相當히 낮고, 또한 域内依存度도 輸出이 28.7%, 輸入이 25.1%에 不過하고 結成前과 比較하여도 別進展이 없었다. 特히 EFTA의 中心國인 英國의 域内依存度는 15-16% 밖에 안되며, EFTA 結成의 効果는 限定된 것이었다(表 2-2) 이같은 事實은 EC와 달리 EFTA의 市場規模가 相對적으로 좁을 뿐 아니라 加盟國間의 産業構造, 工業化 水準이 적지 않은 格差가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水平貿易의 進展을 지렛대로 하여 競爭의 激化를 刺戟要因으로 하여 各國의 經濟構造가 改善되면서 成長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 動態的 發展要因을 欠하고 있는 것이다.

反面的 지난 1969年末에 이루어진 EC 6 個國 首腦會議에서는 通貨同盟에 對한 基本的 合意가 있었고 보다 具體的인 經濟通貨統合 計劃이 檢討되기에 이르렀다.

(表2-2)

EFTA의 貿易

区 分	伸 張 率 (%)					
	總 輸 出 (入)			地 域 間 輸 出 (入)		
	54-60	60-65	65-70	54-60	60-65	65-70
(1) 輸 出						
英 国	4.5	5.0	7.8	2.3	9.7	11.6
늘웨이	6.8	9.8	11.3	6.6	12.1	12.8
덴마크	9.1	7.3	8.0	5.3	9.1	9.5
其他EFTA	8.6	4.7	14.0	6.5	7.4	18.8
EFTA 計	6.3	5.3	10.3	5.0	8.8	14.7
(2) 輸 入						
英 国	3.4	6.7	5.9	0.7	9.7	11.8
늘웨이	5.3	8.6	10.9	2.1	11.0	12.8
덴마크	9.1	7.7	9.1	4.5	8.9	10.6
其他EFTA	13.1	2.8	13.4	10.2	7.0	19.0
EFTA 計	7.1	5.5	9.3	4.9	8.8	14.7

資料：OECD統計，1972

이것을 둘러싸고 通貨의 統合이 優先되어야 한다는 仏蘭西와 經濟政策의 協調를 부르짖는 西獨이 対立하여 그調整이 어려웠으나, 1971年 2月에는 드디어 加盟国間에 合意가 成立되기에 이르렀다.

그內容은 ①資本의 完全自由化 ②單一通貨의 創設 ③共同體 中央銀行의 設立 ④經濟政策의 統一等 最終目標를 明示하고 있다. 따라서 實驗段階로서 1971年 1月1日에서 3年間을 予定하고, 그동안 ①地域內 通貨相互間에 變動換率 幅의 축소 ②中央銀行間의 協助, 中期經濟政策의 設定, ③加盟国의 國際収支 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中期信用供與機關의 創設, ④稅制의 體系化를 企圖하기로 하였지만 5月の 「마르크」과동과 잇다른 國際通貨과동으로 因하여 實施가 연장되고 있다.

그後 各国間 通貨調整이 成立된 後에 1972年 3月, ①域內通貨相互間의 變動幅의 縮少 ②域內 諸通貨에 依한 市場의 相互介入 ③歐洲通貨 協力基金의 創設 ④投機的 資本의 移動策의 整備가 決定되고, 1972年 7月1日까지에 現在의 域內 通貨變動幅 4.5%를 2.25%로 縮少키로 하였다.

第 3 章 南·北韓經濟統合의 必然性和 前提條件

가. 經濟的 統合의 必然性

70年代에 접어들면서, 統一問題는 大統領에게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誠實한 義務」를 賦課할 程度로 現實的인 問題로 登場하였다. 勿論 그것은 오늘 내일에 곧 實現될것 같다는 뜻에서 가 아니라 그어떤 名分보다도 壓度的인 明分이 되었다는 뜻에서 現實的으로 된 것이다.

「유-럽」에서와는 달리 極東地域에서의 冷戰狀態는 70年代에 와서야 解氷期를 맞이 하였으며, 2次世界大戰 以後 20年間 亞細亞에서의 緊張狀態가 解消되지 못한 理由는, 한마디로 말하여 中國大陸의 赤化와 韓國動亂, 「인도차이나」戰爭과 이에 대응할 美國의 對共產圍封鎖政策의 結果였다.

따라서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60年代까지의 이같은 亞細亞情勢를 反映하여 「유-럽」에서 보다, 훨씬 더 硬直된 狀況아래에서 分斷狀態가 더욱 深化되어 갔을 뿐이다. 실상 그當時 彼此間에 標榜했던 統一政策이란 實際로는 相對方을 굴복시켜 自己편에 吸收하려는 戰術的 表現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곧 冷戰의 한 形態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 오면서 亞細亞에도 緊張緩和의 물결이 밀어 닦쳤는데, 1968年 8月 「닉슨」독트린 으로 具體화된 美國의 亞細亞에서의 軍事的 撤收政策과 蘇聯의 亞洲安保會議 提案, 中

共의 対日 対美接近, 그리고 中・蘇紛爭等으로 亜細亞에서는 美・蘇 中 三強과 日本까지 包畵한 四強의 均衡体制가 구축되기 始作 하였다.

이처럼 70年代는 亜細亞에서의 四強의 「게임」이 始作된 歷史的 轉換期라고 볼 수 있으며 對內的으로는 70年度의 8.15宣言과, 72年度 8月 12日에는 赤十字社가 提案한 南・北離散家族찾기 運動은 南・北間의 非政治的 接觸을 試圖한 劃期的 事件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같은 事實은 南・北統一의 原則과 先行條件을 淸명한 1972年 7月 4日의 南・北共同聲明으로 連結되었으며, 6.23特別宣言으로 發展을 보았던 것이다.

이같은 政府의 새로운 平和統一政策을 提示한 6.23聲明은 오늘날의 國際關係의 現況에 對한 率直한 檢討와 現實主義的인 接近方法을 特徵으로 하고 있는데, 韓半島의 統一은 未來의 經濟發展을 위해서 더욱 큰 興件造成이 形成될 것이다.

왜냐 하면, 韓半島의 統一은 하나의 民族國家로서 韓國의 完成을 뜻하는 것이며 世界史에 參與를 위한 前提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經濟的인 側面에서 볼때 單純한 要望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必然的인 過程이 아닐 수 없는데 領域內的 人口增大는 限定된 資源의 效率높은 開發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對外的으로는 現在 140個의 民族國家들 틈에 끼어서, 더욱이 先進工業國家群과 互角的 競爭을 推進시켜 나가기 위해서, 國土統一의 完成이 要求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半島의 統一은 經濟發展을 위해서 더욱 큰 與件造成이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①限定된 資源의 能率的인 活用을 들 수 있으며, ②規模의 經濟의 国内的 擴大 ③地域的 分業化 및 專門化의 促進과 ④分斷對立에 따르는 國民生活의 非經濟的 消耗의 節約과 ⑤궁극적으로 國民貯蓄의 建設的인 活用等を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經濟的 側面에서의 統合은 韓半島의 經濟發展을 能率化, 分業化의 促進을 擴大시키는 礎가 되는 것이며, 또한 궁극적으로 統一은 順序上 經濟的 統合부터 實現시킴으로서 段階的으로 完遂될 수 있는데, 經濟的 實利에 對한 慾求에 따라서는 政治的인 利害關係를 超越하고 克服하면서 統合과 統一은 實現될 수 있을 것이다.

8.15解放과 더불어, 他意에 依한 分斷 밑에서 韓民族은 統一의 利點을 人爲的으로 犧牲 當하였는데 列強의 消費市場으로 버림 받음으로써 世界史의 參與가 遲延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國際社會의 正當的 一員으로서의 登場이 어려운 處地에 놓여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試練속에서도 韓國經濟는 지난 60年代를 經過하면서 刮目할만한 發展을 이루어 왔으며, 이제 80年代에 大衆消費의 進歩된 工業國家로 登場할 것이 豫想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韓國의 高度成長은 이제부터 本格的으로 世界舞台를 살아야 할만큼 發展된 바 있으며, 成長速度面에서는 오늘날 世界에서도 最上位圈에 있기 때문에 8.15宣言이나 6.23宣言도 이같은 高度成長을 中心으로 한 国力에 背景을 基盤으로 하여 提起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껏 分斷狀態下에서 孤立的이고 消極적인 自己守護의 方向을 韓國은 이제 脱皮해야 할 位置에 있는 것이다.

2次世界大戰 以後, 世界經濟의 새로운 秩序는 民族國家들 사이에 經濟的 統合이 擴大되어 온바 있는데, 例를 들면 EEC를 비롯하여 (才2章 參照) 數百年間의 敵對關係에 있던 國家群들 까지도 經濟統合을 實踐한 바 있으며 이같은 現象은 現在 文化, 外交 또는 軍事的인 共同市場으로 까지 擴大되고 있는 傾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 反하여 地球위에 다른 한편에서는 政治的 分斷國이 增加해 온바 있는데 特히 亞細亞地域에서 이러한 傾向이 크다. 이같은 現象은 經濟的 後進성과 密接한 關聯性이 있는데, 統合하면 雙方이 커지는 것이 經濟原則인데도 不拘하고 經濟的 後進國家들 사이에는 經濟的 實利보다도 政治的 明分과 「이데오로기」에 執着하여 自己守護와 分斷을 甘受하려는 傾向이 큰데 特히 오늘날 國際的 孤立속에서 金日成 唯一體制를 強化하고 있는 北韓의 경우, 이같은 傾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結局, 經濟發展이 落後된 國家에서는 經濟的 計算이 鈍하여 經濟的 實利를 追求해 나가는 手段과 方法을 모르거나 弱한 것이 經濟的 信念을 지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統合代身 分斷狀態下에서 自主貫徹만을 위한 政治理念과 政治的 戰略에 置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經濟協力이나 經濟的 統合과 地域間的 統一을 決코

疎外하려는 것은 아니나, 政治理念에 過熱한 나머지 統合推進이 妨
害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經濟的 後進國家들의 通性인 것이다.

南·北間의 經濟統合可能性을 經濟發展 水準이나 格差에 根拠를
두고 摸索하려는 경우 相反된 二가지 展望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南·北韓의 經濟發展度가 相互 비슷한 水準에 있을 때에
는 統合은 어려우며 各地域은 獨自的인 成長과 繁榮을 強調하는
分斷의 固定化를 크게 한다는 主張이며, 둘째로, 이와는 反對로 또
하나의 論理는 地域間 經濟發展度가 均等한 水準에 있을 때, 오히려
統合의 可能性이 增大한다는 見解를 볼 수 있는데 一般的으로 地
域間의 經濟發展水準이 均等하지 못하고 格差가 있을 때에는 實力
上으로 支配와 被支配, 또는 君臨과 隸屬關係가 形成되는 것이 現
實이다.

이러한 경우 經濟力이 相對的으로 弱한 地域은 武力에 依한 侵
入이라면 몰라도 平和的인 協商을 通하여 隸屬 또는 被支配의 力
學關係를 甘受하면서 까지 統合을 願하지는 않을 것이 豫想되는데,
특히 經濟的 實利에 鈍感한 後進地域에서 더욱 그같은 性質이 길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原因은 政治理念이 經濟的 實利보다 優位
에 있기 때문이며 分斷狀態下에서 自己名分을 固守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나. 經濟統合의 前提條件

韓半島의 統一은 하나의 民族國家로서 韓國의 完成을 뜻하는 것이며, 世界史의 參與를 爲한 前提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經濟的인 側面에서 볼때 單純한 要望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必然的인 過程이 아닐 수 없는데, 一般的으로 經濟交流를 통한 統合의 接近過程은 첫째로 經濟構造的인 側面과 全體的 力量으로 分離하여 考察할 수 있다.

(1) 構造的 側面에서의 統合與件

一般的으로 經濟構造가 相異할 때에는 相互補完的이며 水平的 分業關係의 形成으로 統合過程에서의 摩擦要素가 적으며, 相互間 經濟的 利益追求의 面에서 政治的인 敵對關係의 超越 可能性이 크다. 예를 들면 EC內에서의 獨逸과 仏蘭西는 지난 1971年 1월에 3年間을 豫定하고 地域內 通貨相互間의 換率變動幅의 縮少 라든가 中央銀行間의 協助, 中期經濟政策의 設定, 加盟國間의 國際收支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中期信用供與機構의 創設等을 提示한 바 있다.

反面에 經濟構造가 同一할 때에는 서로가 獨自的인 經濟發展 過程을 追求함으로써 統合의 必要性은 絶감하나 相互共存의 可能性은 增大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經濟의 構造的 側面에서의 統合의 成立與件을 中心으로 하여 南·北韓을 볼 것 같으면, 根本的으로 EC나 EFTA와 다른 것은 他意에 依한 國土의 分斷으로 因하여 理念과 體制가 다르다

는 點을 들 수 있으며 따라서 經濟構造의 側面에서의 差異點은 優先 南·北韓의 地理的인 特徵으로 因한 賦存資源의 差異는 지난 1940年度를 中心으로 하여 볼때 重工業의 80%는 北韓에 偏在하고 있었으며 化學工業部門의 81%는 北韓에 偏在하게 되어, 國土의 分斷과 더불어 南·北韓은 各各 異質的인 經濟發展 過程을 追求하여 왔다.

<表 3-1> 分斷時 南·北韓工業生產比較 (1940年)

區 分	韓 國	北 韓
	比 率 (%)	比 率 (%)
重 工 業	21	79
化 學 工 業	18	81
金 屬 工 業	10	90
機 械 工 業	72	28
輕 工 業	69	31
紡 織 工 業	85	15
食 料 品 工 業	65	35
其 他 工 業	65	35

資料：國土統一院，南·北韓部門別 經濟比較 및 長期豫測，1972.12

即，北韓은 그의 工業政策을 소위 社會主義的 工業政策을 實現하는데 基本目的을 두고 모든 生産手段을 지난 1950年代 後半에

와서 國有化 하였고, 經濟政策도 重工業 優先策에 集中함으로써 住民들의 生活向上을 爲한 輕工業을 犧牲시켰으며 經濟體制 自体가 外部로 부터 孤立된 閉鎖體制를 維持하여 왔기 때문에 原料가 北韓地域에서 生産되지 않는 産業은 거의 發達하지 못하였다. 또한 強力한 計劃經濟를 實施함으로써 工業部門이 多樣化되지 못하고 中央工業과 地方工業으로 分離되고 있으며, 重工業의 基礎原料가 되는 鉍物採取業을 重要視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70年代에 와서는 主로 軍需工業의 系列化를 中心으로 鉍業部門이 라든가 金屬, 機械工業이 主로 發達한 事實을 볼 수 있다.

이같은 現象은 北傀가 追求한 소위 「社會主義工業化」에 起因하는데, 지난 1925年 蘇聯共産黨 第14次大會에서 採擇된 「社會主義工業化」의 概要는 大略 다음과 같음을 볼 수 있다. 即 當時의 蘇聯의 工業의 三大欠陷은 넓고 뒤떨어진 技術을 가진 工場과 製造所만을 가졌고, 機械製作工業의 後進性이 라든가 重工業의 未熟은 輕工業 發展을 沮害하고 있는 點이라 하였다.

따라서 工業化의 必要性은 機械製作, 自動車, 冶金等 軍需産業을 發展시켜서 近代的 農業機械工場들을 建設하여 集團農業經營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社會主義的 工業化는 資本主義諸國의 工業化와는 달리 輕工業으로 부터 始作하여 重工業發展을 期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重工業發展에 注力하여 어느 水準에 到達한 後에 輕工業發展에 着手하기 때문에 工業化가 매우 빠른 期間에 完成된다는

것이다.

事實 蘇聯은 1925年末부터 始作하여 近 50年間に 걸쳐 이같은 「社會主義 工業化」를 推進하여 왔는데 輕工業 部門은 아직도 住民들의 生活上의 要求를 充足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要컨데 社會主義 工業化란 住民들의 財産과 勞力을 最大限으로 剝탈해서 軍需工業과 關聯되는 重工業部門을 優先적으로 發展시킨다는 뜻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追求하는 世界共產化를 促進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工業化政策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北傀의 工業化 政策에 反하여 韓國은 지난 1960年代를 일관하여 흘러온 韓國의 産業政策은 곧바로 1.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같은 兩次에 걸친 5個年計劃의 中核部分은 「工業化」로 集約할 수 있다.

따라서 60年代 前半期에 追求한 工業化政策으로서 基幹産業의 擴充, 新規工場의 建設等 諸般施策은 結果적으로 工業生産의 急速한 増大를 가져와 1960年度를 基準(100)으로 한 66年度の 製造業의 生産指數는 216.3으로서 6年間 2倍以上으로 增加하였다. 工業部門의 이와 같은 増大를 業種別로 본다면 輕工業에 比하여 重化學工業의 増産傾向이 越等히 크다.

2次 5個年計劃에 있어서는 自主的인 工業化 發展의 기틀을 確立하는 同時에 工業構造의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한 鉄鋼, 機械, 石油化學工業等を 中心으로 한 重化學工業 建設에 總力을 기울이게 되었다. 優先 鉄鋼工業을 育成하기 爲하여 粗鋼 103萬% 規模의

綜合製鐵이 가동 되었고 年產 銑鐵 12萬 5千噸 規模의 仁川製鐵도 豫定대로 67年과 68年에 各各 起工되었다.

또한 石油化學工業을 鋼鐵, 機械工業과 함께 三大戰略分野로 指定 하고 「에치렌」 「나프타」 分解센터와 이를 母體로한 PVC, 「폴리에틸렌」等 8個의 系列工場을 71년까지 建設함으로서 이제껏 全量 輸入에 依存하고 있던 化學纖維를 비롯한 各種 化學工業의 原料를 國產化하기에 이르렀다.

電子工業에 있어서도 輸出戰略產業으로 育成하기 爲하여 69年度에 「電子工業振興法」의 通過와 함께 이를 系列化 및 專門化하였으며, 自動車工業에 있어서도 組立段階를 벗어나, 國產化 促進과 함께 76年度에는 量產體制에 依한 價格의 國際平準化를 爲한 試圖를 現在 推進中에 있다.

특히 造船工業은 造船施設을 近代化하고 技術向上을 圖謀하고 國際競爭力을 培養시킴으로서 造船工業이 輸出產業化 할 수 있는 基盤을 구축하는데 成功하여 現在 26萬噸級의 大型 탱커를 建造하고 있으며 機械工業育成策에 依해서 電子工業部門에 있어서는 外國人의 投資가 活潑히 이루어 짐으로써 生產品種이 多樣化되고 오늘날 輸出產業으로 크게 發展하는 등 顯著한 成果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南·北間의 産業構造를 比較하여 볼 때 韓國은 北韓에 比하여 輕工業部門은 勿論 工業의 構造的 變化過程에 있어서도 오늘날 石油化學工業을 爲始하여 電子, 造船, 一部 機械工業部門에 있어서도 北韓과 比較할때 構造的 樣相이 判이하기 때문에 經濟構

造的인 面에 있어서는 經濟統合의 可能性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3次 5個年計劃 以後에는 特히 石油化学, 鉄鋼 및 製鉄, 機械工業 等の 育成으로 生産 및 工業의 比重이 急激히 增加될 것이 豫想 되며, 지난 1930年度 以後 이제껏 우리나라의 工業化 過程의 部 門別 指數는 다음과 같다. (表 3-2)

<表 3-2>

韓國의 工業化過程

(單位: 10 億원)

年 度	消 費 工 業		生 産 財 工 業		分 類 未 詳	
	附加價值	構成比(%)	附加價值	構成比(%)	附加價值	構成比(%)
1930	-	72.2	-	8.5	-	19.3
1948	-	53.5	-	10.6	-	35.9
1953	24.1	73.0	8.5	25.8	0.4	1.2
1954	28.3	71.1	10.9	27.4	0.6	1.5
1955	35.6	73.0	12.3	25.2	0.9	1.8
1956	42.5	73.9	14.1	24.5	0.9	1.6
1957	47.2	73.8	14.8	23.1	1.0	3.1
1958	50.3	78.6	12.7	19.8	1.0	1.6
1959	51.7	68.9	22.0	29.3	1.3	1.8
1960	54.8	68.0	24.5	30.4	1.3	1.6
1961	54.4	65.7	26.9	32.5	1.5	1.8
1953-61 平 均						

年 度	消 費 工 業		生 産 財 工 業		分 類 未 詳	
	附加價值	構成比(%)	附加價值	構成比(%)	附加價值	構成比(%)
1962	57.7	60.7	35.6	37.4	1.8	1.9
1963	64.6	57.9	44.6	40.0	2.4	2.1
1964	66.4	56.9	47.8	40.9	2.6	2.2
1965	83.5	58.5	56.6	39.6	2.7	1.9
1966	94.5	57.0	68.2	41.1	3.1	1.9
1962-66 平 均		58.2		39.8		2.0
1967	115.3	56.2	85.8	41.8	4.2	2.0
1968	141.0	53.2	116.3	44.2	5.7	2.2
1969	175.5	54.6	138.7	43.1	7.4	2.3
1970	212.8	56.1	154.2	40.7	12.3	3.2
1971	257.9	57.6	175.8	39.3	13.7	3.1
1967-71 平 均		55.6		41.9		2.6

資料：韓國銀行，國民所得年報에서 作成

(2) 經濟力量面에서의 統合與件

經濟構造的 側面에서의 統合與件은 經濟構造가 相異할 때에는 相互 補完的이며 水平的 分業關係의 形式으로 統合過程에서의 摩擦 要素가 적으며, 經濟的 利益追求의 面에서 政治的 敵對關係의 超越 可能性이 크다.

反面에 統合成立 與件의 判斷基準으로서 經濟力量面에서 볼 것

같은 면 南·北間의 統合可能性을 經濟發展의 水準 또는 格差에 根拠를 두고 摸索하려는 경우 相反된 二가지 展望이 主張되고 있는데, 하나는 南·北間의 經濟發展度가 相互 비슷한 水準에 있을 때는 統一은 어려우며 各地域은 獨自的인 成長과 繁榮을 強調하는 分斷化의 傾向을 크게 가진다는 主張이고, 이와는 反對로 地域間 經濟發展의 水準이 均等한 狀態에 있을 때 統合의 可能性은 커진다고 하는 主張을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地域間的 經濟發展水準이 均等하지 못하고 격차가 있을 때는 實力上으로는 支配와 被支配 또는 支配와 隸屬關係가 形成되는 것이 普通이다. 이럴 경우 經濟力이 보다 弱한 地域은 武力에 依한 侵入이라면 몰라도 平和的인 協商을 通해서 自願해서 被支配의 力學關係를 甘受하면서 까지 統合으로 接近하지는 않을 것이다. 特히 經濟的 實利追求에 鈍感한 後進地域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이 같은 地域에서는 政治理念이 優勢하게 되는 것이며 分斷下에서의 自己名分을 固守코저 한다.

따라서 南·北韓의 經濟統合過程中 韓國經濟가 北韓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優勢할 때 우리는 統合의 接近過程中 讓步範圍 擴大可能에 따라 主導的인 統合接近이 可能하고 北韓이 韓國에 比하여 優勢하다면 그들의 政治的 目的의 達成을 위한 武力赤化와 戰爭挑發이 豫想된다.

結局 南·北韓 雙方의 經濟發展과 工業化過程의 段階, 全体的인 水準이 비슷할 때 平和共存 및 統合을 위한 接近可能性이 增대한

다고 볼 수 있는데 諸國間 經濟의 發展段階가 不均衡狀態를 이루고 있는 EFTA 보다 經濟發展의 段階와 技術水準이 거의 비슷한 EEC가 훨씬 더 빠른 速度로 統合을 向한 進展이 빠르게 推進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 때, 南·北韓의 經濟規模가 總量面에서 볼때는 韓國의 GNP (72年度) 約 96億弗에 比하여 北韓은 約 38億弗로서 越等히 작으나, 人口 1人當 國民所得은 72年度의 경우 韓國의 303弗에 比하여, 北韓은 約 254弗로서 뒤떨어지고 있으며 最近 數年間의 經濟成長率도 韓國에 比하여 越等히 뒤져 있는 形便이다. (表 3-3)

더우기 이같은 GNP 라든가 成長率의 指標도 北韓의 경우 統計의 信憑度가 적기 때문에 實質的으로는 더욱 낮은 水準에 있을 것으로 推測되는데, 우선 ① 北韓은 이제껏 全體的인 經濟成長率보다는 工業部門의 成長率 爲主로 發表한 바 있기 때문에 共產主義經濟體制下에서 工業部門 爲主의 投資를 強行했고 農業의 落後現象이라던가 3次產業 部門이 취약하기 때문에 全體的인 成長率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고, ② 北韓은 工業品價格을 높게 策定하고 農産物價格을 낮게 策定하기 때문에 單純한 統計의 指標로서는 그들의 經濟水準을 짐작하기 힘든 것이다. ③ 또한 오늘날 北韓은 金日成 1人獨裁體制를 維持하기 爲하여 그들 社會를 外部로 부터 遮斷하여 소위 말하는 Autarky 體制下에서 重工業部門에 集中的 投資를 強行하고 더우기 이같은 資金을 農業部門과 輕工業部門의

犠牲의 代價로서 蓄積하여 왔기 때문에 實際 住民들의 生活水準은 이 같은 全体的인 指標와는 달리 낮은 水準에 있을 것이 豫想된다.

따라서 現段階에 있어 力量面에서의 統合與件은 成熟되지 못하였다고 判斷되며, 오히려 經濟構造的인 側面보다 統合의 與件은 그 性質이 희박 하다고 볼 수 있다.

<表 3-3> 南·北韓 GNP 增加推移 (1961-72)

年 度	GNP (1,000 万弗)		1人当 GNP (弗)	
	韓 国	北 韓	韓 国	北 韓
1961	241.1	134.5	94.9	121.9
1962	251.1	149.4	96.1	131.9
1963	273.0	163.6	101.6	139.8
1964	296.2	179.9	107.2	150.2
1965	324.6	181.0	114.4	146.7
1966	380.4	192.4	130.8	155.9
1967	427.1	211.2	143.4	163.3
1968	501.8	257.4	164.7	193.4
1969	609.1	272.5	198.0	201.7
1970	699.3	319.3	223.0	225.0
1972	962.0	384.0	303.0	254.0

資料：韓國，經濟企劃院

北韓，南·北韓經濟力比較

国土統一院； 1972.

다. 經濟成長과 統合展望

本章에서 우리는 南·北韓經濟統合의 必然성과 그 前提條件으로서 經濟構造의 側面과 全體經濟力量面에서의 檢討를 하였다.

經濟構造의 側面에서는, 經濟構造가 同一한 樣相 보다는 相互補完的인 構造가, 力量面에서는 雙方間의 不均衡이 지나치게 沈化되는 것 보다는 對等한 均衡과 所得水準이라든가 生活水準이 비슷한 狀態로 接近되는 것이 바람직한 樣相으로 보았다.

따라서 70年代의 南·北間의 經濟成長 展望과 統合展望을 볼 것 같으면, 韓國은 지난 1972년부터 「3次 5個年計劃」을 現在 推進하고 있으며, 北韓은 76年度를 目標로 하여 「6個年經濟計劃」을 推進하고 있다.

韓國은 이미 1, 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통하여 工業立國과 自立經濟의 基盤을 強化하여 가고 있으며 3次 5個年計劃과 뒤이어 계속될 4次 5個年計劃이 完遂되는 80年代에 들어서면 經濟와 社會의 均衡的 發展의 達成과 81年度の 年間輸出 100億弗, 1人당 GNP 1,000弗의 目標을 達成함으로써 福祉社會에로의 轉換을 計劃하고 있다.

優先 國民總生産部門을 볼 것 같으면, 71年度에 80億 2,000萬弗이었던 國民總生産은 3次 5個年計劃이 끝나는 76年度에 가서는 162億弗로서 約 2倍의 成長을 計劃하고 있으며 1981年度에는 現在の 經濟規模의 約 4倍가 되는 約 332億弗에 이르게 되어 韓國經濟는 中進國上位圈에 들어설 것이 豫想된다. (表 3-4)

<表 3-4>

国民總生産과 1人当 所得增加豫測

區 分	1961	1966	1971	1976	1981
国民總生産 (100万弗)	2,400	3,800	8,029	16,163	33,221
經濟成長率 (%)	4.2	13.4	9.8	10.0	10.0
1人当国民所得 (弗)	94.9	130.8	252.0	500.0	1,000.0

資料：經濟企劃院， 1973.

이에 따라 1人当 国民總生産은 71年の 252弗에서, 76年度에
는 500弗로, 다시 81年度에는 1,000弗에 到達할 것이 豫想된다.

이와 같이 1人当 國民所得 1,000弗은 5人家族으로 計算하면
戶当 年間所得이 200萬원에 該當하는 額數이다. 産業構造에 있어
서는 지난 1961년까지만 해도 韓國의 産業構造는 農·水産業이
43.8%, 社会·間接資本等 3次産業部門이 41.3%, 鉞工業이 14.9
%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後 계속적인 經濟開發計劃의 推進으로 産業構造가 高度
化하고 輸出供給能力을 擴大하여 76年度에 가서는 農·水産業의
20.8%에 比하여, 鉞工業의 比重이 29.8%로 늘어나고, 81年度에
는 그比率이 16.5% 对 38.3%의 比率로 擴大되어 産業構造가
完全한 工業國으로 改編될 것이 豫想된다. 또한 工業構造 自体는
重化学工業의 比重을 增大시켜 80年代에 가서는 重工業 中心의

産業構造가 豫想된다. (表 3-5)

<表 3-5>

産業構造의 發展展望

單位：(%)

區 分	1961	1966	1971	1976	1981	備 考
農·水産業	43.8	37.9	26.3	20.8	16.5	成長率 72-76 4.8% 77-81 5.0%
鎂·工業	14.9	19.9	23.8	29.8	38.8	72-76 14.8% 77-81 16.0%
社會·間接 資本 및 서비스業	41.3	42.2	49.9	49.4	44.7	72-76 9.6% 77-81 7.8%

資料：經濟企劃院

다음 投資財源 調達現況을 볼것 같으면 經濟自立을 測定하는 基準이 되는 投資財源의 自立度는 主要한 經濟政策의 目標가 되어 왔으며, 71年 現在 国内貯蓄은 國民總生産에 對하여 18.3% 이었으나, 3次 5個年計劃이 끝나는 76年度에는 21.5%로 늘어나고 다시 81年度에는 26.0%로 增大된다. 그러나 總投資에 對한 国内貯蓄의 比重은 다른 나라에 比하여 아직도 低調한 편이며 70年代 後半에 이르러서야 投資財源調達の 自立態勢가 이루어 질 展望이다.

輸出趨勢는 1,2次 5個年經濟計劃期間中 年平均 42.6%의 높은

成長率을 보여 1970年度에는 輸出總額이 10億弗을 突破했고, 3次 5個年計劃期間에는 年平均 23.4%의 成長을 持續, 76年度에 約 40億弗의 輸出을 達成할 것이며, 81年度에는 約 110億弗이 豫想 된다.

한편 輸出의 構造面에서도 原料爲主에서 벗어나 工產品이 主軸을 形成할 것이 豫想되며, 76年度에는 工產品의 輸出이 全体輸出額의 約 90%를 넘을 것이고 80年代에는 1次產品 5% 對 工產品 95%의 比率로서 輸出構造가 改善될 것이 展望되며, 交易對象國은 140個 國家가 될것이며 輸出品目도 71年度의 983種에서 1,200種으로 늘어날 것이 豫想된다. (表 3-6)

<表 3-6>

輸出增加와 輸出構造의 改善

(單位: 100萬圓)

區 分	1961	1965	1971	1976	1981
總 輸 出	146	455	1,616	4,069	11,000
貿 易	43	256	1,132	3,510	10,000
貿 易 外	105	205	482	599	1,000
1 次 產 品	78.0	37.6	14.0	9.4	5.0
工 產 品	22.0	62.4	89.0	90.6	95.0
對 象 國 數	25	74	108	125	140
品 目 數	100	445	983	1,120	1,200

資料: 經濟企劃院

外資保有高는 지난 61년에 2億5百萬弗에 不過하였으나 71年度에 5億3千5百萬弗로 增加하였고, 76年度에는 約 10億弗 水準에 到達할 것이 豫想되며 다시 80年度에는 約 23億弗 水準의 外貨保有高가 豫想된다.

이와 같은 韓國經濟의 發展相에 比하여 北傀가 現在 推進하고 있는 「6個年計劃」의 主要內容을 볼것 같으면, 우선 同計劃의 基本課業으로서 「工業化的 成果를 公히 發展시키며, 技術革命을 새로운 높은 段階으로 進展시켜 社會主義의 物質的 土台를 더욱 튼튼히 한다」고 되어 있으며, 經濟部門別 課業을 보면, 工業部門의 内部構造 完備로서 工業部門의 主体的 強化를 다짐하고 있다.

6個年計劃은 工業總生産額을 70年度를 基準으로 2.2倍로 增大시킬 것을 算定하였는데 그中 生産財 生産을 2.3倍로 消費財 生産을 2倍로, 그리고 重工業部門 3倍, 地方工業部門을 3.2倍로 增大시킬 것을 計劃하고 年平均 工業成長率을 14%로 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重工業部門内에서는 国内需要를 充足시키지 못하는 石炭 發展에 가장 重點을 두었는데 石炭은 80~90%를 増産할 豫定이고 電力 發展計劃을 完遂하기 爲하여서는 더많은 發電機의 生産을 計劃하고 있으며, 原油加工 工業과 石油化學工場, 그리고 化學纖維工場의 新設을 計劃하고 있다.

한편 6個年計劃의 才1次年度인 71年度의 実績을 볼것 같으면 「시멘트」 400萬屯, 石炭 2,750萬屯, 電力 150億 KWH等 主要生

産部門에서 目標을 達成하고, 工業部門에서는 6,000 屯級 「프레스」
大型「트락타」, 電氣機關車, 5千屯級 船舶等의 國産化가 可能하고
機械의 自給率도 98.2%에 達하였다고 한다.

農業部門에서는 農村技術革命으로 農業生産을 高度로 集約化하며,
1976年度에 穀物生産을 700萬屯으로 增産할것을 主目標로 하고
그中 約 350萬屯을 米穀生産이 차지하도록 하며, 農業對 工業의
比重을 볼것 같으면 國民經濟生活에서는 65年度에 66% 對 34
%이던 것이, 69年度에는 26% 對 74%가 되고, 國民總生産에서
보면 66年度の 75% 對 25%이던 것이 69年度에는 35% 對
65%가 되었다 한다.

運輸 및 通信部門을 보면, 76年度에 鐵道貨物輸送量을 1.7倍
以上으로 늘릴 計劃이며 아울러 計劃期間에 船舶貨物 輸送量을
1.8倍로 增加시킨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輸送部門을 急速
히 增大시킨다는 것은 그間 生産資本과 社會·間接資本사이의 不
均衡이 深化되었다는 事實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業의 投資計劃을 볼것 같으면 國家基本建設 投資總
額의 78%가 生産的 建設에, 22%가 非生産的 建設에 配分할것
을 計劃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建設投資總額의 49%가 工業
建設에 그中 83%가 重工業部門에 配分되고, 農業部門에 建設投資
는 總額의 18%에 不過하다.

敎育·科學·文化分野를 볼것 같으면, 計劃期間에 60餘萬名의 技
術者, 專門家를 養成하여 1976年까지 技術者 專門家를 100萬名

以上으로 늘린다고 하였으며, 全般的 義務教育을 10年制 技術義務教育으로 轉換할 準備를 갖춘다고 計劃하고 있다. 그리고 研究開發을 積極化하고 地下資源에 對한 調查研究事業을 強化하고 있다.

다음 人民經濟生活部門을 볼것 같으면, 生活水準을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主要한 것은 勞動者와 農民사이 에 生活水準의 差異, 都市와 農村에 生活條件의 差異를 없애는데 注力을 하고 있다. 即 計劃期間에 國民所得을 1.8 倍로 늘려서 勤勞者들의 實質收入을 높임으로서 平均賃金水準을 90 圓으로 算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76年度에 協同農場員들의 世帶當 貨幣收入을 平均 1,800 圓 以上으로 計劃하고 있으며, 아울러 消費品價格을 約 3% 程度 引下할 것을 計劃하고 있으며, 6 個年計劃의 部門別 主要生産目標은 다음과 같다. (表 3-7, 表 3-8)

이와 같이 北傀는 70年代에 들어와서 世界經濟의 急速한 擴大와 變化하는 國際環境속에서 北韓만이 뒤떨어질 수 없고 더우기 韓國經濟의 急速한 發展에 焦燥感을 느낀 北傀는 共產主義國家는 勿論 自由陣營으로 부터도 資本과 技術의 導入에 過去보다 훨씬 積極性을 띠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先進諸國으로 부터 經濟 技術協力이 必要한데 蘇聯이나 中共에 크게 期待하기 어렵기 때문에 英國, 西獨, 프랑스, 스위스, 日本等과의 經濟交流에 積極성을 보이고 있다. 北韓의 70年度 貿易總額은 約 8 億弗이라고 하는데 同年의 北韓의 GNP를 約 35 億弗로 본다면 貿易依存度는 約 23%가 되는 것이다.

<表 3-7> 動力，鋁業，冶金，機械工業部門の主要目標

(1970 ~ 76)

區 分	1976 年 目 標	成長率 (70年基準)
動 力		110
電 氣 (10 億 KWH)	28-30	70-82
石 炭 (100 万屯)	50-53	83-93
鋁 業		100
鉄 鋁石		100
銅 "		80
鉛，亜鉛鋁石		70
冶 金		
銑 鉄 (100 万屯)	3.5	
鉄 鋁 (100 万屯)	3.8	73-82
圧延鋁 (100 万屯)	2.8-3.0	
機 械 (1,000 台)		
工作機械	27	160
乘 用 車	-	140
巨 形	-	
TV 受象機	100	-

資料：国際問題研究所

<表 3-8 > 建設資材 및 輕工業部門 生産計劃 (1970-76)

區 分	1976年目標	成長率(70年基準)
建設資材		90
시멘트 (100万吨)	7.5-8.0	88-100
파이버, 보드		580
輕工業		100
織維	500-600	25-50
신발	70	-
紙類	203	80
農漁村部門		
水産物 (100万吨)	1.6-1.8	
穀物 (100万吨)	7	
트랙타 (100헥타당)	6.9台	
化学料施肥量	1헥타당 1吨	
果物 (100万吨)	0.8-1	
畜産部門		
肉類 (万吨)	40-50	
계란 (億個)	30 ^億	
牛乳 (万吨)	6	
羊毛 (吨)	2,500	

資料：國際問題研究所

그러나 이같은 貿易總額中 約 80%를 共產國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를 非共產國諸國이 차지하고 있는데 主要輸出商品은 鐵鉍石, 無煙炭, 鐵鋼, 非鐵金屬, 銑鉄, 圧延鋼材, 化學肥料, 시멘트, 水産物等이고, 主要輸入商品은 生고무, 타이아, 雪糖, 小麦, 石油, 機械設備, 各種工作機械, 배아링, 船舶, 重化學工業製品 等이다.

이와 같이 南·北韓이 공히 現在 76年度를 目標로 하여 經濟計劃을 推進하고 있으며, 韓國은 80年度까지의 4次 5個年經濟計劃의 目標까지 設定하고 있으며 北韓도 近來에 와서는 다시 工業部門의 次期展望計劃을 發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韓國은 80年度에 차서는 100億弗의 輸出과 1人當 GNP 1,000弗의 達成以外에도 石油化學工業의 系列化와 重化學工業의 體制를 구축하여 中進國 上位圈에 進入할 것이 豫想되며 北韓의 경우에도 年率 6% 以上の 經濟伸張이 豫想되나 現段階에 있어서는 첫째로 軍事動員에 依한 勞動力 動員이라든가, 外援의 不足과 内部蓄積의 限界에서 오는 資本不足과 技術水準의 落後現象이 經濟成長에 制約要因을 形成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여타의 共產國家와 마찬가지로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가 지니는 伸縮性의 欠如가 經濟體制内部에서 非能率을 招來한다는 事實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이제껏 北韓이 軍事力 強化에 그들의 限定된 人的, 物的 資源을 動員하고 自主路線을 主張함으로써 外部로 부터 資本이나 技術을 導入하는 것을 制限한 것은 그들 經濟發展에 커다란 支障을 招來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今後 北韓은 이같은 成長의 制限 要素를 어떻게 合理的으로 除去해 나아가느냐 하는 데에 그들 經濟發展의 關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같은 制約要因이 除去된다면 80年代에 가서는 北韓도 近代的인 産業國家로 登場할 可能性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今般 南·北關係에서 重大한 意義를 갖게 되는데 即 北韓이 이제껏 固守하여 오던 好戰性과 社會主義 建設過程에서 追求하여 오던 政治優先을 漸次 經濟優先으로 轉換하여 그들 經濟의 發展을 極大化 한다던 오늘날 東·西獨의 接近模型이 그대로 韓半島에서도 適用될 수 있다는 事實을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即, 東·西獨이 지난 70年代에 들어 와서 接觸과 對話를 促進할 수 있었던 契機는 西獨經濟의 繁榮에 뒤떨어졌던 東獨이 最近 몇年間에 걸쳐서 世界 10大 工業國으로 發展할 수 있을 정도로 經濟的 發展을 보여 주었고 또한 이같은 經濟發展을 確保하기 爲하여서는 西獨과의 有利한 條件의 經濟交流가 不可欠한 條件이 되었기 때문이다.

第4章 東·西獨의 經濟的 接觸 類型과 南·北韓關係와의 比較

第2章과 第3章에서, 經濟統合의 類型과 統合過程에서 經濟力量과 經濟構造가 어떠한 作用을 하는가 하는 問題를 다루어 보았다.

本章에서는 오늘날 同一한 分斷國인 東·西獨에 있어서 經濟的 側面에서의 接近類型과 이같은 類型이 南·北韓 關係와의 어떠한 差異點이 存在하는 가를 檢討하고자 한다.

獨逸의 경우를 볼것 같으면, 近代史에서 「게르만」民族을 獨逸이라는 統一國家로 그基礎를 形成하는데 基本이 된 것이 바로 「關稅同盟」이다. 그 顯著한 例는 1834년에 成立한 「獨逸關稅同盟」으로서 1867년에 加盟國이 擴大되어 全体獨逸聯邦을 包攝한 것이다. 이와 같이 關稅同盟에 依하여 獨逸聯邦의 結合이 強化되었으며 經濟的인 繁榮을 가져 왔고, 後의 獨逸帝國統一의 基礎가 된 것이다. 따라서 關稅同盟은 經濟的 利益뿐만 아니라 政治的 結合의 機會가 되었다는 點에서 매우 重要한 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特徵은 오늘날에도 東·西獨間의 物資의 交換이 東·西獨 關係에서 政治的 關係에 훨씬 優先하여 왔다. 더우기 이같은 經濟分野에 있어서는 여타의 分野에서 볼 수 없을 만큼 秩序整然하며 安定된 關係에서 存續하여 왔다는 點이다.

이같은 點은 現在 南·北韓關係와 比較한다면 韓半島와 獨逸間의 分斷關係에서 가장 對照的인 點이다. 南·北韓은 分斷初期에 있어

서 南·北間의 非公式的인 物物交換形式으로 物資의 交換을 한 것
과 北韓의 電力使用에 對한 代價를 一部 物資로 提供하여 南·北
間의 物資交易을 한 것 以外에는 南·北間의 物資交換은 없었다.

이같은 事實이 오늘날 東·西獨關係와 南·北關係의 큰 差異點이
라 할 수 있는데 兩獨間의 通商關係에 있어서 契約締結의 基本이
되고 있는것은, 1950年의 「베르린」協定이며 이것은 占領地域間
通商協定인 것이다.

또하나의 東·西獨關係와 南·北關係의 經濟的 側面에 比較에서
問題點은 兩分斷國의 오늘의 經濟體制를 構成한 歷史的 比較와 體
제의 性格問題의 比較다.

첫째, 東·西獨分斷에서 그 經濟的 出發點을 볼것 같으면, 1949年
東獨이 成立하였을 때 地域的으로 工業地帶인 「루르」地方과 「라
인」地域을 西獨이 掌握하였으며, 工業資源은 거의가 西部地域으로부
터 供給받고 있었고 重工業은 西部地域에 集中되어 있었다. 따
라서 東獨은 工業基盤이 없었는데 西獨은 主導的 立場에서 東獨과의
經濟關係를 主導하였다. 西獨은 지난 1960年에 「占領地域間通商
協定」을 廢棄하기도 하였으나 1961年 다시 續開되어 通商을 持
續하기 爲하여 西獨은 數次에 걸쳐 東獨에 借款을 提供하였으나
現在에는 西獨의 루르企業들이 東獨國營工場에서 西獨의 技術로 自
動車 「모터」를 生産하기도 할 程度로 西獨은 東獨과의 經濟關係
를 進步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現狀은 마치 韓半島에서의 南·北韓分斷時 北韓은 工業

地帶와 資源을 가지고 出發하였으며, 韓國은 輕工業의 一部와 農業 地域으로 남은 것과 對照的이다. 特히 北韓으로 부터 電力의 供給이 中斷된 歷史的 南·北關係의 例는 그特徵을 말해주는 좋은 例이다.

그러나 經濟體制에서의 問題點을 같은 社會主義 經濟建設과 重工業에 置重한 東獨과 北韓이 이루어 놓은 經濟體制上的 問題點이다. 即 北韓은 重工業을 基礎로 한 軍需産業體制를 形成하였고 東獨은 漸次 西方側 經濟市場과도 어느程度 連結이 되는 平和的인 市場經濟體制를 形成하였다는 點과 對照的이다. 이같은 問題는 今後, 可能할 수 있는 兩分斷國의 經濟的 統合이나 市場結合을 予見할 때 매우 重要한 條件의 比較가 된다.

이와 關聯한 分斷接觸 過程에서 東·西獨이 70年代에 들어와 接觸과 對話를 促進할 수 있었던 契機는 西獨經濟의 繁榮에 뒤떨어졌던 東獨이 最近 幾年間에 걸쳐서 世界 10位의 工業國으로 發展할 程度로 經濟的 發展을 나타내었고 이같은 經濟發展을 確保하기 爲하여서는 西獨과 有利한 條件의 經濟交流가 東獨에 있어서 不可欠한 要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東·西獨間의 關係發展은 오늘날 南·北韓關係에 있어서도 比較될 여지는 있는데 特히 北韓은 1971年을 起點으로 하여 6 個年經濟計劃을 着手하고 있으며, 韓國은 72年부터 3次 5 個年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고 있는데 兩計劃이 모두 76年度에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南北韓의 經濟的 競爭體制로 突入하게 되는 것이 特徵이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는 國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는 데 主目的을 둔 平和經濟의 구축임에 反하여 北韓은 潛在的 軍需產業에 力點을 두는 그들의 6個年計劃을 全적으로 活用한다면 70年代 中半期에 가서는 南·北間의 經濟的 不均衡이 深化될 것이며 이같은 不均衡은 南北接觸이나 對話에 障害要素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東·西獨의 경우 처럼 조금이라도 經濟的 側面에서 南·北韓이 經濟體制나 經濟政策의 目的에서, 共通的 要素를 지니느냐 하는 問題는 70年代 後半에 南·北韓關係를 決定짓는 重要한 要因이 될 수 있다. 勿論 東獨은 事實上 蘇聯軍의 軍事占領下에 놓여 있음으로 經濟的 軍事化가 緩和되고 있다는 점이 事實이며, 北韓經濟의 軍事化와는 커다란 差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오늘의 北韓經濟의 開放的 傾向은 또하나 注目되는 點이라 볼 수 있다. 卽 北韓의 60年代의 經濟計劃이 失敗한 原因은 主로 中共과 蘇聯에만 經濟的 門戶를 開放하고 其他의 外部市場이나 經濟圈에 對해서는 閉鎖的인 態度를 固守하여 왔다는 事實은 北韓이 그들의 經濟發展過程에서 資本과 技術의 沈滯를 招來하고 말았다. 더우기 中·蘇紛爭에서 決定的인 經濟的 타격을 받은 것도, 60年代 그들의 經濟計劃의 失敗原因이라는 데서 最近의 北韓의 對日接近이 日本의 資本과 技術에 接近임은 말할 必要도 없으나 여기서 注目할 點은 北韓이 그의 經濟領域을 開放하기 始作하였다는 點이다.

이와 같은 北韓의 經濟的 開放은 美·中共의 和解에서 中共이 그

들의 市場을 크게 開放할 때 東北亞細亞의 經濟圈의 中心部에 놓인 韓半島가 果然 現在와 같은 嚴格한 市場과 經濟圈의 分斷을 堅持할 수 있을 것인가 事實上 問題點인 것이다.

結局 이러한 새로운 美·中共 및 日·中共間의 市場交流 또는 美國과 日本의 極東「시베리아」共同開發等은 韓半島 經濟의 分斷을 그대로 放置하지는 않을 것이라 展望된다. 特히 7.4 共同聲明은 諸般交流를 相互約束하였으며 여기에 經濟的 物資交流도 包含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經濟交流에서 注意할 點은 優先 南北韓의 共同市場의인 共同點을 찾는 일이다. 卽 우리의 一部 經濟人이 여타의 資本主義的 市場을 보듯이 北韓市場을 볼 수 없으며, 事實 오늘날 北韓에는 國家以外의 市場이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相互間의 經濟補完點을 發見하여 어떤 接觸點을 찾는 일이 重要하며 그와같은 經濟的 接觸의 機構的 形態를 形成하는 일이 무엇 보다도 重要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北韓이 提案한 北韓海域에서 共同漁撈作業 하나만 하더라도 이미 純粹한 經濟的 物資交流의 問題가 아니며, 物資에 따르는 人的 交流, 또는 南·北韓의 人的 交流가 된다는 데서 이미 經濟的 領域을 벗어나는 政治的인 問題인 것이다.

따라서 南·北間의 特別한 經濟的 接觸點을 찾는 일이 時急하며 이를 機構化하는 일이 重要하다. 東·西獨의 경우는 첫째 非商業的인 物品交換節次에 關한 것을 東·西獨基本條約의 追加議定書에 規定하고 있으며, 둘째, 東·西獨의 通商上의 接觸과 遂行은 西獨의

경우 1949年以來 西베르린에 駐在하고 있는 「信託管理所」가 管掌하고 있으며 東獨의 경우는 「對外經濟省」이 管掌하고 있다.

따라서 東·西獨關係와 南北關係와의 差異點은 東·西獨의 經濟交流는 그들의 政治的 關係에 훨씬 先行하며, 그들의 接觸過程의 主要한 要素로 되어 왔으며 이와 關聯하여 그들의 分斷接觸過程에서 70年代에 들어와 政治的인 對話를 促進할 수 있었던 契機는 西獨經濟의 繁榮에 뒤떨어졌던 東獨이 最近 몇年間에 걸쳐서 世界 10位의 工業國으로 發展할 程度로 經濟的 發展을 보여 준 것이 때문이다. 南北韓은 實利爲主의 純粹한 經濟的 側面에서의 交流가 없이 政治的인 對話를 試圖하고 있으며 特히 經濟構造가 韓國은 開放體制下에서 對外經濟協力을 通하여 急速한 成長을 成就하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은 이제껏 閉鎖體制下에서 軍需工業을 爲主로 하여 潛在的인 戰爭能力을 培養하여 왔기 때문에 住民들의 生活水準이 韓國에 比하여 심히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1960年부터 70年 사이에 東·西獨交易의 增加推移와 交易商品 現況은 다음과 같다(表4-1)(表4-2)(表4-3)

(表 4-1) 東・西独交易量の推移(1960-1970) (1)

(单位：100 萬마르크)

年 度	西 独 の 輸 入 量(2)	西 独 の 輸 出 量(2)	總 交 易 量	差 額
1960	1,123	960	2,082	-163
1961	941	873	1,814	- 68
1962	914	853	1,767	- 61
1963	1,022	860	1,882	-162
1964	1,027	1,151	2,178	124
1965	1,260	1,206	2,466	- 54
1966	1,345	1,625	2,977	280
1967	1,264	1,483	2,274	.219
1968	1,440	1,432	2,872	- 8
1969	1,565	2,272	3,837	707
1970	1,997	2,399	4,396	402

註(1) '計算單位=西独마르크

(2) 西베르린 包含

資料 Statistisches Bundesamt

(表 4 - 2) 西独의 对東独輸入 現況

(单位: 100 萬마르크)

区 分	1955	1965	1969	比 率 (%)
鉍 業 生 産	166.2	213.9	101.1	6.5
原料, 生産財	166.2	274.8	344.0	21.3
石 油 生 産	58.7	69.3	36.5	2.3
化学品生産(2)	71.9	101.4	135.5	(8.7)
投 資 財	69.9	152.0	277.2	14.5
機 械 製 作 生 産	58.0	71.1	105.5	(6.7)
消 費 財	121.6	326.9	509.1	32.5
섬유 및 피복	90.4	221.5	314.3	(20.1)
農 業 및 食 糧 生 産	56.6	288.6	390.6	25.0
穀 物	9.6	95.0	72.3	(4.6)
돼 지 고 기	-	83.7	5.0	(4.3)
其 他 生 産	0.2	4.2	3.3	0.2
總 計	580.7	1,260.4	1,565.3	100.0

註:(1) 西베르린 包含

(2) 合成樹脂製品 包含

資料: Statistisches Bundesamt

(表 4-3) 西獨의 對東獨 輸出現況 (1)

(單位：100 萬 마르크)

區 分	1955	1965	1969	比 率 (%)
鉍 業 生 產	26.7	29.9	73.6	3.2
原料 및 生 產 財	170.5	648.3	1,171.1	51.5
鐵 및 鋼 鐵 ⁽²⁾	70.5	286.2	350.2	15.4
化 學 製 品 ⁽³⁾	81.0	282.2	469.6	20.7
投 資 財	136.8	190.6	500.3	22.0
機 械 製 作	33.1	146.0	356.0	15.7
消 費 財	46.8	94.0	186.7	8.2
農 業 및 穀 物	140.3	239.5	337.8	14.9
其 他 生 產	-	3.8	2.3	0.2
總 計	521.1	1,206.1	2,271.3	100.0

註：(1) 西베르린 包含

(2) 주물생산포함

(3) 合成樹脂生 產 包含

資料：Statistisches Bundesamt

第5章 展望 및 對備策

이제껏 우리는 他意에 依해서 分斷된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을 爲한 過程으로서 南·北韓 經濟統合의 必然성과 그 前提條件을 經濟構造的 側面과 南·北韓의 經濟力量面을 中心으로 하여 觀察하였으며 特히 現在 우리와 같은 分斷國인 東·西獨의 接觸模型을 우리와 比較하여 觀察하였다.

一般的으로 經濟統合이라 함은 優先 非政治分野에서의 交流를 前提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 南·北間의 이같은 非政治的인 分野에서의 交流와 接觸이 欠如된 狀況下에서는 이같은 經濟統合의 實現性을 現實적으로 認定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960年代에 와서 國際間的 勢力의 多元化 現象과 強大國의 韓半島에 對한 利害關係가 現象維持와 平和定着으로 固定되자 지난 1970年 8.15宣言과 이듬해 72年 8月, 大韓赤十字社가 提案한 南·北離散家族 찾기 運動은 南·北間의 非政治的 接觸을 試圖한 劃期的 事件이었다.

이와 같은 事實은 다시 南·北統一의 原則과 그 先行條件을 淸명한 1972年 7月 南·北共同聲明으로 連結되었으며 이듬해 다시 6.23 特別宣言을 보았던 것이다.

이같은 政府의 새로운 平和統一政策을 提示한 6.23 聲明은 오늘날의 國際關係 現況에 對한 率直한 檢討와 現實主義的인 接近方法을 特徵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껏 우리는 大韓民國 政府가 韓半島

에서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立場에서, 北韓의 國聯加入을 反對해 왔으며 여타의 國際機構에 北韓의 加入을 阻止해 왔는데, 國聯總會에서 韓國問題가 討議될 때 마다 南·北代表團의 同時招請案을 封鎖해 온 従來의 統一外交政策을 이제 6.23 聲明을 契機로 하여 撤回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와 併行하여 南·北調節委員會의 共同委員長은 非政治的인 分野에 걸쳐 多方面的 南·北韓交流를 提案한 바 있다. 特히 이 가운데서 南·北韓 經濟人의 相互交流와 商社의 相互常住問題는 特記할 만한 것이며 더우기 南·北韓이 同時에 國聯이라든가 其他 國際機構에 加入을 前提로 한다면 經濟的인 側面에 있어서도 制限된 分野에서의 協力을 爲始하여, 國際市場에서의 北韓과의 競爭問題에 對한 檢討와 分析은 매우 主要한 問題가 되는 것인데 이같은 接觸과 交流, 競爭의 諸問題는 궁극적으로 經濟統合의 前提條件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最近 數年間에 있어서의 東·西和解를 基調로 하는 國際政治, 經濟情勢의 變化로 말미암아 始作된 南·北間의 對話는 政治 및 軍事的인 對立關係에서 漸次 經濟的 競爭으로 轉換할 可能性이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事實은 또한 南·北間의 交易의 可能性을 시사함과 아울러 각기 가지고 있는 對外 經濟去來의 競爭性을 暗示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對北韓 戰略을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修正하여야 할 必要性이 대두 되는 것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 지난 5年間에 걸쳐 우리의 이같은 平和的 統一努力에 比하여 現在의 北韓은 60年代의 經濟計劃의 失敗와 이로 因한 여러가지 經濟發展의 制約要因과 그들 体制가 지니고 있는 硬直性 등 많은 問題點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制限된 部門에서의 部分的인 接觸은 이제껏 그들이 維持하여 온 体制自体를 위태롭게 할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現實적으로 그 實現이 매우 어려운 形便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東·西獨의 接觸過程이 우리와 根本적으로 다른 點은, 獨逸의 경우는 物資의 交流가 政治的 關係에 훨씬 先行하여 왔는데 比하여, 南北間은 分斷 初期에 있어서 非公式의 物物交換形式으로 物資의 交換을 한 것 以外에는 南·北間은 아무런 交流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가지는 經濟体制에서의 問題點을 들 수 있는데, 東獨도 初期에는 社會主義 經濟建設과 重工業部門에 置重하였으나 漸次 西方側의 市場經濟와도 어느정도 連結되는 經濟体制로의 轉換을 이루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같은 問題는 今後 可能할 수 있는 兩分斷國의 經濟的 統合이나 市場統合을 予見할 때 매우 主要한 條件의 比較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東·西獨이 70年代에 들어와 接觸과 對話를 促進할 수 있었던 契機는 西獨經濟에 比하여 심히 뒤떨어졌던 東獨이 最近 몇年間에 걸쳐서 世界10大 工業國으로 發展할 程度로 經濟的 發展을 이룩하였고 이같은 經濟發展을 成就하기 爲하여서는 西獨과 有利한 條件의 經濟交流가 東獨에 있어서는 不可欠한 要件이 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東·西獨間の 關係發展은 오늘날의 南·北關係에 있어서도 比較될 여지는 있는데, 特히, 北傀는 70年代에 들어 와서 世界經濟의 急速한 擴大와 變化하는 國際環境속에서 그들만이 孤立되고 뒤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더욱이 韓國經濟의 急速한 發展에 焦燥感을 느낀 北傀는 共產主義 國家는 勿論, 自由障營으로 부터도 資本과 技術의 導入에 過去보다 훨씬 積極성을 띠우고 있는 樣相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의 北韓은 先進諸國으로 부터 資本과 技術協力이 必要한데 蘇聯이나 中共에 크게 期待하기 어렵기 때문에 英國, 西獨, 仏蘭西, 스위스, 日本等과의 經濟交流에 積極성을 보이고 있다.

現在 南·北韓이 다같이 76年度를 目標로 하여 經濟計劃을 推進하고 있으며 韓國은 이미 80年度까지의 4次 5個年計劃의 目標까지 設定하고 있으며, 北韓도 近來에 와서는 6個年計劃 앞당기기 運動과 다시 工業部門의 次期展望計劃을 發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韓國은 80年度에 가서는 100億弗의 輸出과 1,000弗의 1人當 國民所得 目標의 達成 以外에도 石油化學 工業의 系列化라든가 重化學工業의 體制를 完了함으로써 中進國 上位圈에 進入할 것이 予想되며 北韓의 경우에도 年率 約 6% 以上の 經濟成長이 予想되나 現段階에서 무엇 보다도 軍事力 動員에 依한 勞動力의 供給不足이라든가 外援의 不足과 内部蓄積의 限界에서 오는 資本不足과 技術水準의 落後現象이 經濟發展에 制約要因을 形成하고 있으며 여타의 共產國家와 마찬가지로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가 지니는 伸縮

性의 欠如가 經濟體制 内部에서 非能率을 招來한다는 事實을 들 수 있다.

따라서 今後 北韓은 이같은 成長의 制約要因을 어떻게 合理的으로 除去해 나가느냐 하는데 그들 發展의 關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要因이 除去된다면 80年代에 가서는 北韓도 近代的인 産業國家로 登場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今後 南·北關係에서 重大한 意義를 갖게 되는데 即 北韓이 이제껏 固守하여 오던 好戰性과 그들 社會主義 建設過程에서 追求하여 오던 政治優先을 漸次 經濟優先으로 轉換하여 그들 經濟發展을 極大化한다면 오늘날 東·西獨의 接近模型이 그대로 韓半島에서도 適用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予想할 수 있으며, 反面에 北韓이 80年代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 體制의 硬直性을 그대로 固守하면서 外部로 부터 孤立된 가운데 潛在的인 軍事力 強化爲主의 戰爭經濟能力을 培養한다면 北韓의 經濟는 더욱 沈滯하고 궁극적으로 國力의 不均衡은 擴大되어 韓半島에서의 緊張은 더욱 高潮될 危險性이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2가지 側面에서의 假定을 予想하고 今後의 政策課題로서는 무엇보다 더 健全한 經濟力의 培養인데 ① 産業의 底辺 擴大와 國際競爭力의 基盤造成策으로서 뿐만 아니라 有利한 外資의 誘致를 爲하여서도 港灣施設의 國際水準을 包含한 社會間接資本의 補充이 時急하다. ② 限定된 國土에 國際競爭力을 뒷받침하는 老大人 生活基盤을 形成하기 爲하여서는 個別 産業이 갖는 立地優位性을

最大한 發揮하면서 가장 効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方向에서 國土의 利用秩序를 再調整해나아가야 할 것이다. ③企業規模에 副應해서 所要되는 投資資本의 調達策으로서 外資의 投資誘致를 積極化해야 할 것이다.

最近 先進國의 資本은 自國內 生産基盤造成의 限界性에서 脱却하고자 海外投資에 注力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다 有利한 資本을 誘致할 수 있도록 投資의 環境을 再整備해 나아가되 特히 投資誘引 對象의 選擇을 慎重히 하여야 할 것이다. ④ 尙大한 附加価値生産을 直接的으로 担当할 人力의 끊임없는 開發이 있어야 할 것이다. 豊富한 勞動力을 有効需嬰化하여 總生産에 參與範圍를 擴大함으로써 直接的으로 GNP增加에 寄與하고 間接적으로는 勞働生産性과 技術水準의 提高로 國際競爭力을 強化해야 할 必要性이 큰데 近來의 企業公開의 義務化와 促進法은 이같은 觀点에서 그 效果가 發生하도록 最大限의 努力이 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企業公開의 促進은 總生産에 參與範圍를 擴大하고 國際競爭力을 涵養한다는 意義도 크나 韓國과 같은 開發途上國에서 所得의 配分面에서의 平準化 效果도 크기 때문이다. ⑤ 南·北問題에 있어서는 이미 6.23 宣言에서도 分明히 하였지만 北傀로 하여금 國際的인 孤立을 脱皮하여 閉鎖社會로 부터 開放社會로 轉換할 수 있게 誘導하는 데 集中的인 戰略의 開發이 時急하며 이와 併行하여 國際社會에서 北韓과의 對決을 爲한 段階的인 戰略이 同時에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과 東南亞市場에서 1次産品の 對한 輸出의 競争도 그 한例이다.

